

이명박 정부 때 호남출신 장·차관 사라지더니
이젠 주요 부처 실국장·과장급까지 씨가 말라

광주시·전남도-중앙정부 소통할 '인맥'이 끊겼다

정부부처 주요부서에서 광주·전남 출신 공직자들의 씨가 마르고 있다. 특히 정책 결정 및 예산 배정의 실무 책임자급인 정부부처 서기관, 부이사관의 수가 급감하면서 광주·전남도가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봉쇄돼 있다는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를 찾아 전남 주요 현안에 대한 2017년 예산 배정을 요청한 이낙연 전남지사가 이 같은 현실에 직면한 뒤 착잡한 심경을 밝힌 정도다.

기재부 예산실 한 명도 없어

7일 오전 전남도 실국장 토론회를 주재한 이 지사는 "기획재정부(예산실) 과장(서기관) 중 광주·전남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번에 기재부를 찾았더니) 수십 명이나 되는 과장 중에 지역 출신이 없었다"고 토론했다.

정부부처 예산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각 실과의 과장은 실무책임자로,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국실장, 차관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과장급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지자체 추진 사업은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기재부에는 지금까지 주요 부서에 지역 출신 과장급 공직자가 최소 1~2명은 있었으나 올 초 인사 이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어 전남도 실국장에게 "과거에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과장급

아래에서라도 믿음직한 체널을 만들어 반드시 지역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요직' 밀려나 '변방' 전전

2015년 10월 말 광주시 서울본부, 전남도 서울사무소가 작성한 '예향수첩'에 따르면 사무관 이상 중앙부처 공직자는 모두 1880명이다. 행정자치부가 13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고용노동부(108명), 교육부(94명), 기획재정부(92명), 외교부(86명) 등의 순이다.

문제는 사무관 이상 간부 직원 중 상당수가 소위 '요직'에 자리하지 못하고, 산하 기관 등 '변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시작된 '호남 홀대, 영남 편중' 인사가 7년 이상 계속되면서 간부 직원들을 이끌어주던 지역출신 장·차관이 사라지고, 실국장급, 과장급 등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전망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

전남도 관계자는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려면 결국 지역 출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줄이 하나둘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장차관급 인사부터 간부직원에 이르기까지 지역출신 공직자들이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야권 통합·연대 총돌...국민의당 내홍

안철수 "불가" - 천정배·김한길 "가능성 열어둬야"

호남 민심은 '호남서 경쟁·수도권 연대' 해법 주목

야권 통합 및 연대를 놓고 국민의당이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야권 통합 및 연대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선대위위원장 등은 '야권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김한길 국민의당 상임 공동선대위위원장은 7일 마포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우리 당이 교섭단체 이상 의석만 확보하면 여당이 개헌 선을 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야권 통합 및 연대에 불을 다시 지폈다.

이에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무조건 통합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이미 익숙한 실패의 길일 뿐"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안 대표는 이어 "저희들의 목표는 기존의 거대 양당 구조를 깨는 일"이라며 "퇴행적 새누리당에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국민께서 주진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정배 공동대표는 선대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에 개헌 저지선을 내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당 입장에서라도 그건 대재앙"이라며 김 선대위원장에 힘을 실었다. 천 대

표는 이어 "개헌선(200석)을 새누리당 세력에게 넘겨준다는 건 국가에 어떤 미래도 없다는 걸 뜻한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다산콜센터 방문한 자리에서 "야권통합 문제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 상황"이라며 "(김한길 선대위원장)한 분의 말씀으로 그것이 바뀌어 질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야권 통합 및 연대를 둘러싼 지도부 내의 이견이 확산되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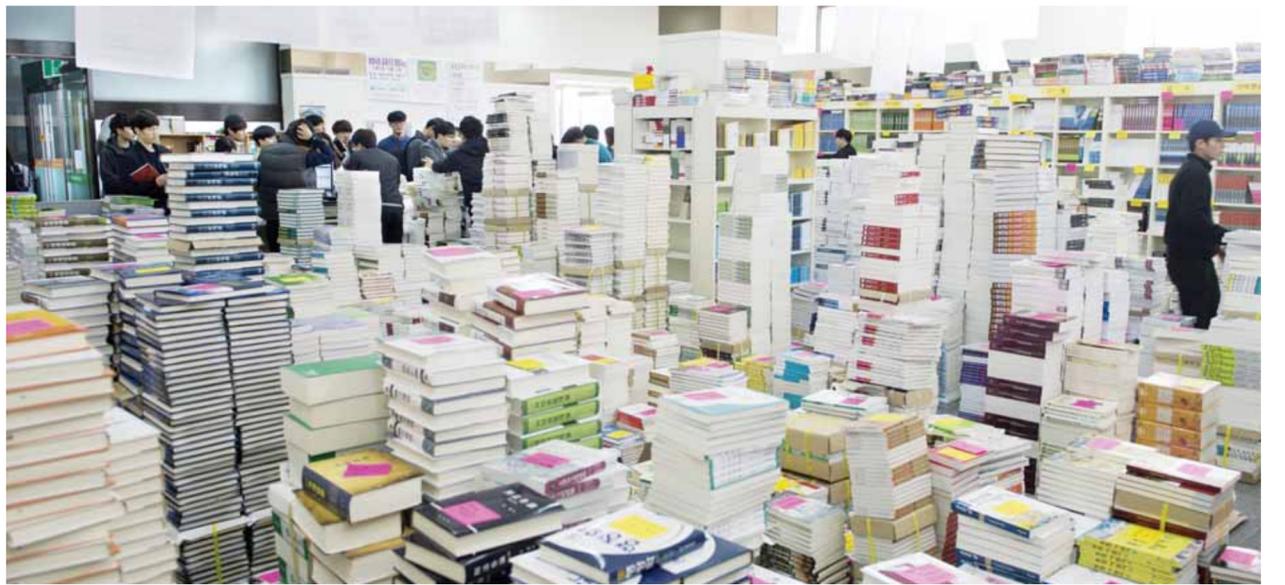
국민의당 존립의 기반이 되는 호남 민심이 '호남에서는 경쟁, 수도권에서는 연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호남 지역 국민의당 예비 후보들은 수도권 연대는 불가한 것 아니냐며 안 대표가 지역 정서를 너무 모른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당 광주·전남지역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수도권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지도부가 야권 연대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 지도부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정치적 현실을 감안, 보다 유연하게 제3의 길을 찾아가는 현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학기 대학가 서점 '북적' 7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 교내 서점에 새 학기 강의 교재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민 10명 중 4명만 "시민으로 자부심 느껴"

40% "전시·공연 관람 안 해"

광주시민 10명 가운데 4명만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가 4900가구(1만9000명)를 대상으로 문화·노동·환경·복지 등 5개 부

문에서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2015년 사회조사 결과다. 사회참여 연대감(광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는지)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9.5%), 약간 그렇다(33.2%), 그저 그렇다(46.7%), 별로 그렇지 않다(9.4%), 전혀 그렇지 않다(1.3%)고 응답

했다. 안전도(범죄) 항목에서는 치안에 대한 불신이 드러났다. 매우·약간 안전하다는 응답자가 15.8%에 그친 반면, 약간·매우 불안하다는 36.6%로 나타났다.

문화·여가 항목에서 1년 동안 공연(박물관 등 문화시설 포함)·스포츠 관람 여부를

문는 항목에 응답자 40.1%가 관람경험이 '없다', 59.9%는 '있다'고 답했다. 관람 부문별로는 '영화를 봤다'는 응답자가 56.3%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12.1%)가 그 뒤를 이어 문화생활이 대중문화와 스포츠 관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연주회(8.1%), 연극 등(7.5), 무용(0.9%), 박물관(8.8%), 미술관(6.2%) 등의 관람은 매우 낮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총선 표밭점검-광양·구례·곡성 ▶5면
KIA 챔피언스필드 새 단장 ▶20면

The New C-Class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동정동) | Tel. 062-226-0001

영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00 1,999cc, 1,9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l (도시연비: 10.8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C 200 Avantgarden 1,991cc, 1,9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l (도시연비: 10.8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C 250d 4MATIC 2,143cc, 1,7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5.5km/l (도시연비: 13.7km/l, 고속도로연비: 18.4km/l), 2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26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구형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